

원유시장 동향

오 세 신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ssoh@keei.re.kr)

1. 국제 원유가 동향 및 변동요인 분석

가. 국제 원유가 동향

최근의 유가는 전반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높은 변동성 역시 동반되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 간 60% 이상 폭락했던 국제 원유가는 2월에 급등세를 나타낸 이후, 3월 들어 하락세로 돌아서는가 싶더니 4월에는 다시 급등세를 보였으며, 5월 들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두바이 원유를 기준으로 2월 초 배럴당 49달러 정도였던 저유가에 따른 석유수요 회복과 공급 둔화 우려로 2월 말까지 58달러 정도로 10달러 가까이 급등하였다. 3월 들어서는 이란 핵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3월 중순 두바이 원유가는 51달러까지 하락하였으며,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 공습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때 56달러까지 급등하기도 했으나 3월 말이 다가오면서 54달러 수준으로 다시 안정화되었다.

하지만 4월 들어 석유시장은 예멘 사태의 심각성과 미국의 원유생산 정체, 세계 석유수요의 회복 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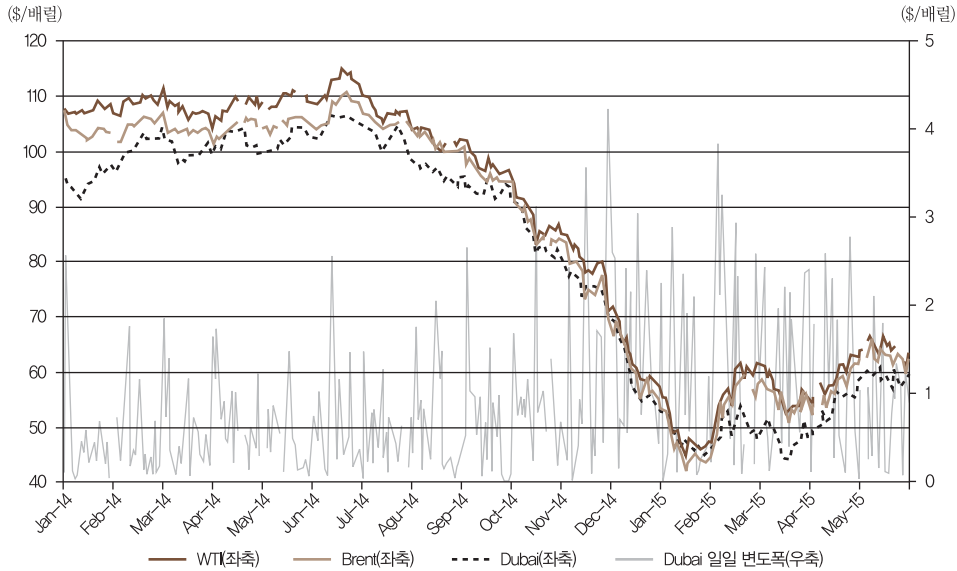
현재 석유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공급불안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유가를 상승세로 이끌었다. 4월 초 두바이 원유가는 배럴당 53달러 수준에서 5월 초까지 65달러로 한 달여 간 12달러의 상승폭을 나타냈다. 그러다 OPEC의 증산에 따른 공급 과잉 심화가 상승 압력을 상쇄시키면서 5월 말까지 유가는 60~62달러의 안정세를 보였다.

유가의 하루 평균 변동폭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2월에 두바이 원유를 기준으로 배럴당 1.5달러 정도였으나, 3월에는 1.2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4월에는 1.0달러로 역시 하락세를 나타냈고 5월에는 0.8달러로 작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1달러 미만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세가 계속되리라 보긴 어렵다. 최근의 석유시장 상황이 중동-북아프리카 정세의 불안정성과 함께 비OPEC 공급 둔화로 인한 OPEC의 공급 비중 확대 가능성, 이란 핵협상의 타결 여부, 세계 경제 회복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는 유가 변동성도 지금보다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유가 변동요인 분석

[그림 1] 일일 국제 현물 원유가 추이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Reuters

〈표 1〉 국제 현물 원유가 추이(2013~2015)

(단위: 달러/배럴)

유종	2013	2014					2015			
		1/4	2/4	3/4	4/4	평균	1/4	4월	5월	평균
두바이	105.25	104.44	106.07	101.56	74.64	96.56	51.92	57.72	62.71	55.29
브렌트	108.56	108.14	109.69	101.90	76.43	98.97	53.86	59.61	63.59	56.88
WTI	97.98	98.68	103.35	97.87	73.21	93.17	48.47	54.45	59.34	51.82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Reuters

1) 저유가 지속 요인

최근까지도 저유가 상황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꾸준히 석유공급 과잉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오랜 동안 공급 과잉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2015년 1분

기 세계 석유공급은 수요를 200만b/d 가량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무엇보다 세계 석유공급이 전년 동기보다 288만b/d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저유가 영향으로 북미 지역인 미국과 캐나다의 석유생산 증가세가 최근 둔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공급량이 급증한 것은 북미 생산량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100만b/d 이상의 증가세에 있고,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생산량이 감소세에 있었던 OPEC의 공급량도 70만b/d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세계 석유수요는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66만b/d에 그쳤던 증가세가 143만b/d로 확대되었지만, 공급 증가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급 과잉 수준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심화되었다.

최근 OPEC의 산유량이 늘어난 것은 중동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생산을 사상 최고수준으로 끌어 올린 것에 더해 이라크에서의 원유생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사우디와 같은 걸프협력기구(GCC) 회원인 UAE와 쿠웨이트 역시 사우디의 전략¹⁾에 동조해 원유생산을 늘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란 핵협상 마감시한이 다가오면서 타결될

〈표 2〉 세계 석유수급 동향

(단위: 백만b/d)

구분	2014					2015	1/4분기 증감	
	1/4	2/4	3/4	4/4	연간	1/4	2014	2015
수요	91.69	91.57	93.06	93.78	92.53	93.12	1.05	1.43
공급	92.19	92.96	94.14	95.19	93.63	95.07	1.70	2.88
재고증감	0.50	1.39	1.08	1.41	1.10	1.95	-	-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2015.5

경우 이란으로부터의 원유공급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점도 저유가를 지속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란은 2011년 11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무기 개발 의혹 제기로 2012년 하반기부터 미국과 EU의 제재에 따라 원유 수출이 150만b/d 가량 감소한 상황이다. 이후 UN 상임이사국(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과 독일로 구성된 P5+1과 핵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4월 2일에 정치적인 합의라 할 수 있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 JCPOA)을 마련하는데 성공하였다. 비록 6월 30일까

지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세부적인 사안들을 합의해야 하는 기술적인 협상과정이 남아있지만 핵협상 타결 가능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란으로부터의 원유공급이 증가할 수 있어 석유공급 과잉 우려는 오히려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JCPOA에 따라 이란 핵개발이 급격히 제한²⁾될 경우 중동 정세불안 완화에 기여해 추가적인 유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JCPOA 발표 이후 합의 결과에 대해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엇갈린 주장이 나타나고 있고 주변국

1) 사우디아라비아는 2014년 11월 OPEC 총회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북미 셰일오일을 견제하고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가 폭락에도 불구하고 원유생산을 줄이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음.

2) 이란의 핵활동은 향후 10~15년 동안 엄격히 제한되며, 이란은 모든 시설에 대한 핵사찰을 허용하며, 논란 중 하나였던 아라크(Arak) 원자력발전소를 중수로에세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없는 형태로 전환하게 됨.



<표 3> 지역별 석유수요 동향

(단위: 백만b/d)

구분	2014					2015	1/4분기 증감	
	1/4	2/4	3/4	4/4	연간	1/4	2014	2015
미주	23.86	23.63	24.21	24.47	24.05	24.04	0.06	0.18
유럽	13.02	13.42	13.90	13.56	13.48	13.52	-0.19	0.51
아·오	8.85	7.66	7.67	8.31	8.12	8.71	-0.01	-0.14
OECD계	45.73	44.71	45.77	46.34	45.64	46.28	-0.13	0.55
아시아	22.37	22.49	22.24	23.01	22.53	23.00	0.51	0.63
중국	10.16	10.40	10.39	10.76	10.43	10.45	0.24	0.29
중동	7.80	8.18	8.57	7.94	8.13	7.92	0.24	0.12
남미	6.59	6.77	6.92	6.90	6.80	6.63	0.21	0.04
구소련	4.63	4.84	5.05	4.99	4.88	4.59	0.16	-0.05
아프리카	3.92	3.94	3.83	3.91	3.90	4.03	0.03	0.10
유럽	0.64	0.65	0.68	0.67	0.66	0.68	0.03	0.04
비OECD계	45.96	46.86	47.29	47.44	46.89	46.84	1.18	0.88
총 수요	91.69	91.57	93.06	93.78	92.53	93.12	1.05	1.43

들의 반발과 협상 당사국들 내에서도 강경파들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핵협상 타결 기대가 다소 희석된 측면은 있다. 미국이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JCPOA 내용에는 이란에 대한 제재는 합의 이행 여부를 검증한 후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고 나와 있으나, 이란은 최종 합의문에 서명한 즉시 전면 해제하기로 합의했다며 미국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게다가 이란 핵협상의 그동안 이란 핵협상에 부정적이었던 공화당이 상·하원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최종 핵협상 결과를 30일 동안 검토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이란 내 강경파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고 종교지도자인 하메네이는 최종 합의 즉

시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는 풀려야 한다고 거듭 언급한 바 있으며, 기밀사항이라 할 수 있는 군사시설에 대한 핵사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란 핵협상 타결 시 중동 내 이란의 최대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이 제기되어 이란과 P5+1이 이러한 환경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만들어 낼지 여부가 다소 불투명해지긴 했다.

미국의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 역시 저유가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될 수 있다. 달러화로 거래되는 원유는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면 고유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 기초적인 이유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속화된 미국 달

〈표 4〉 OPEC 석유공급 동향

(단위: 백만b/d)

구분	2014					2015			증감	
	1/4	2/4	3/4	4/4	연간	1/4	3월	4월	2014연간	2015 1/4
사우디	9.46	9.50	9.62	9.53	9.53	9.77	10.09	10.05	0.12	0.31
이란	2.82	2.84	2.78	2.80	2.81	2.82	2.79	2.88	0.13	0.00
이라크	3.29	3.33	3.23	3.48	3.33	3.49	3.70	3.80	0.25	0.20
UAE	2.73	2.74	2.81	2.75	2.76	2.84	2.84	2.84	0.00	0.11
쿠웨이트	2.53	2.58	2.65	2.67	2.61	2.70	2.70	2.75	0.06	0.17
중립지역 ^a	0.52	0.43	0.38	0.21	0.38	0.20	0.20	0.10	-0.14	-0.32
카타르	0.72	0.71	0.72	0.68	0.71	0.67	0.68	0.69	-0.02	-0.05
앙골라	1.57	1.63	1.72	1.72	1.66	1.77	1.76	1.68	-0.06	0.20
나이지리아	1.93	1.91	1.89	1.88	1.90	1.81	1.74	1.80	-0.05	-0.12
리비아	0.37	0.23	0.57	0.67	0.46	0.37	0.48	0.52	-0.44	0.00
알제리	1.07	1.14	1.15	1.13	1.12	1.11	1.12	1.11	-0.03	0.04
에콰도르	0.55	0.55	0.56	0.55	0.55	0.55	0.55	0.55	0.03	0.00
베네수엘라	2.45	2.48	2.48	2.44	2.46	2.39	2.40	2.44	-0.04	-0.06
OPEC 원유	30.00	30.08	30.53	30.51	30.28	30.49	31.05	31.21	-0.17	0.49
OPEC NGLs	6.31	6.33	6.43	6.45	6.38	6.51	6.51	6.62	0.12	0.20
OPEC 공급	36.32	36.41	36.96	36.97	36.67	37.01	37.56	37.83	-0.05	0.69
비OPEC	55.87	56.56	57.18	58.22	56.96	58.07	58.13	57.87	2.32	2.20
총 공급량	92.19	92.96	94.13	95.19	93.63	95.07	95.69	95.70	2.27	2.88

주: a 중립지역 원유생산량의 50%는 사우디아라비아로, 50%는 쿠웨이트로 귀속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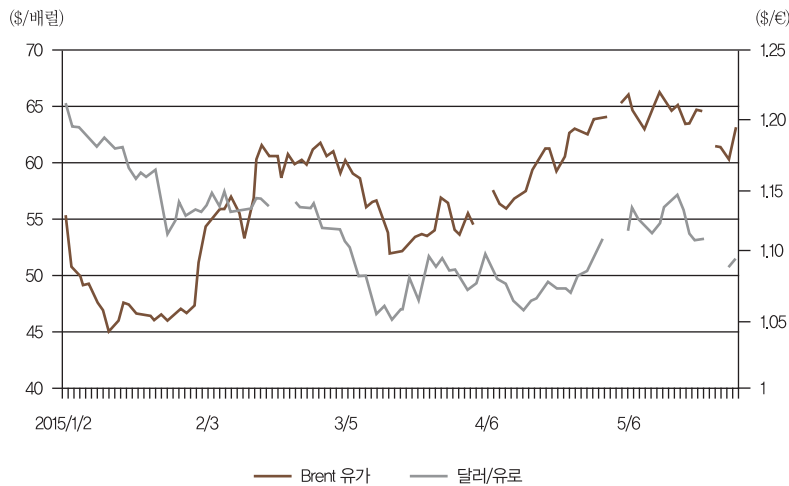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2015.5

러화 강세는 올해에도 이어졌다. EU와 일본, 중국 등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양적완화와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EU와 일본은 올해 들어 양적완화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고, 중국은 최근 6개월 사이에 벌써 3차례 총 0.75~0.9%p 규모로 금리인하를 단행하였다. 게다가

최근 달러화 강세 심화로 미국 경제회복세가 주춤한 상황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경제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 유력해지고 있어 달러화 강세도 유지되고 있다. 올해 들어 서만 미국 달러화 가치는 유로화 대비 9% 상승(달러/유로 환율 하락), 일본 엔화 대비로는 3% 상승(엔/달

러 환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최근 저유가임에도 불구하고 달러화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경제권에게는 원유 비용 상승요인이 되어 석유소비를 일부 억제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림 2] 2015년 국제 원유가와 달러/유로 환율 추이



자료: EIA; 한국은행

2) 유가 상승요인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올해 1월 중순에 기록한 최저치와 비교해서 최근 수개월 동안 국제 유가는 50% 가량 상승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 석유공급 과잉은 계속되고 있고 달러화 강세도 유지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석유시장에서 선물 시장(futures market)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비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래 석유수급에 대한 기대(expectation)는 이미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국제 유가를 결정하는데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국제 유가의 상승은 미래 석유수급에 대한 전망이 크게 달

라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과 비OPEC 공급 둔화 문제, 세계 경제 및 석유수요의 회복 등이 그 배경이라 하겠다.

먼저, 중동 정세는 최근의 예멘 사태 외에도 이란 핵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IS(이슬람국가)의 영향력 확대에 의해 새로운 혼란의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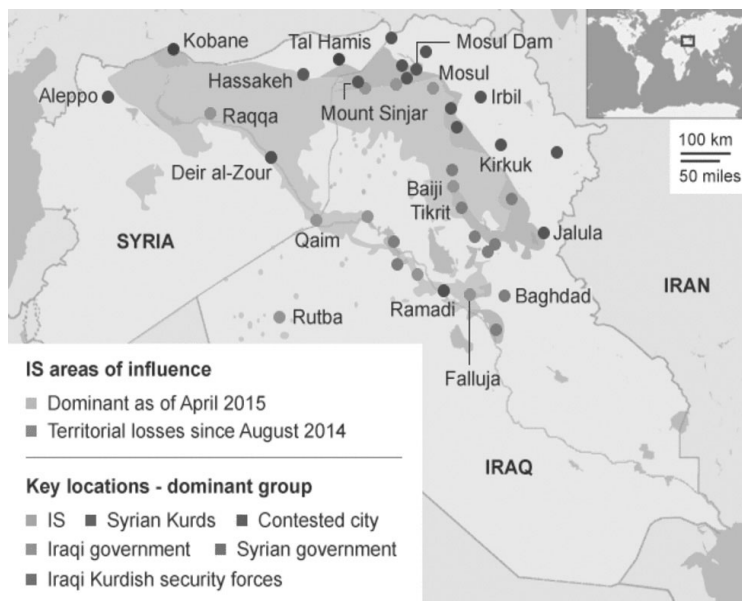
예멘 사태는 시아파 세력인 후티(Houthi) 반군이 예멘 수도 사나(Sana) 등으로 세력을 확장하자 수니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랍 연합군을 구성해 후티 반군을 겨냥한 군사개입에 나선 것을 일컫지만, 석유시장 측면에서는 종파 분쟁의 싹을 키워 중동 석유공급의 불안정성을 높인 것이 사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정부를 이처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선 것은 현재 예멘 정부가 수니파인 하디(Abdurabuh Mansur Hadi)대통령을 수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후티 반군의 배후에 있는 것이 시아파 최대 숙적이라 할 수 있는 이란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의 행보는 최근 이란 핵협상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사우디는 지난 4월 2일 이란과 P5+1이 합의한 포괄적공동동행계획에서 이란의 핵 관련 활동이 제한적이라도 허용된 것에 대해 상당히 불쾌감을 표명하였다. 사우디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이란의 핵활동이 보장될 경우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언급해 왔으며, 최근에는 실제로 사우디가 핵무기 보유국인 파키스탄에서 핵무기 구매를 추

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예멘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우디의 적극적인 군사개입은 이란의 영향력이 자국과 인접하고 있는 예멘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우디와 이란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사우디의 핵무기 구매나 핵개발을 부추기는 효과로 나타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이란 핵협상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라 하겠다.

여기에 5월 들어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IS(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위협하는 등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중동 지역의 정세불안은 보다 심화되는 형국이다. 특히, 바그다드는 남부지역의 대형 유전과 원유수출항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IS

[그림 3] IS의 점령지 및 활동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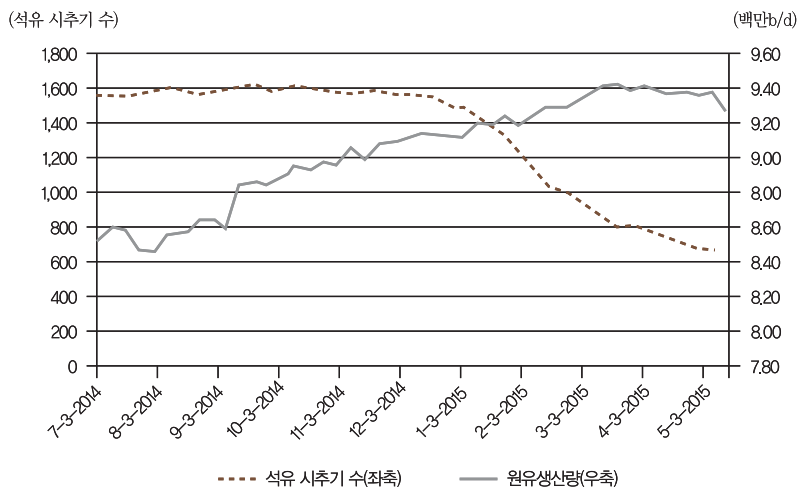


자료: US Department of Defense, Tikrit was retaken from IS in April 2015

에게 장악될 경우 심각한 원유공급 차질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 IS는 바그다드 서부 110km에 위치한 도시인 라마디(Ramadi)를 5월 17일에 점령하였으며, 5일 후에는 바그다드에서 90km 떨어진 후사이바(Husaiba)까지 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IS는 시리아 내에서도 중부지역에 해당하는 팔미라(Palmyra)를 점령하면서 이라크 서부와 시리아 동부를 잇는 상당지역을 수중 안에 넣게 되었다. 이라크와 시리아 정부군이 IS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면서 미국의 지상군 투입도 서서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멘 사태와 이로 인한 이란 핵협상의 불확실성, 그리고 IS의 '이슬람국가' 수립 현실화 등으로 중동은 '아랍의 봄'에 이어 새로운 혼돈의 시대를 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래 원유공급에 대한 불안도 커졌으며 최근 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까지 저유가가 장기화되면서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는 미국 내 석유굴착기 수 감소와 원유생산 정체다. 2011년 고유가를 기반으로 셰일오일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미국 내 석유시추기(oil rig) 숫자도 빠르게 증가했으며, 지난해인 2014년 10월에는 석유굴착기 수가 1,609기까지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저유가가 길어지면서 이후 6개월여 간 석유시추기 수는 계속 감소했으며 24주 만인 2015년 5월 22일에는 659기로 대폭 감소해 최고치 대비 60% 가까운 감소율을 보였다. 올해 초에만 해도 미국 내 석유시추기 수의 감소가 원유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가 주류였다.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데 그칠 것이며, 생산성이 높은 유전으로 석유시추기가 물리면서 미국의 원유생산 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그러나 석유시추기 감소 현상은 예상보다 많이 길

[그림 4] 미국의 원유생산 및 석유 시추기 수 추이



자료: EIA, Baker Hughes Inc

어졌고 그 강도도 심했다. 그리고 미국의 원유생산은 굴착기 수 감소로 뜨겁던 엔진이 차갑게 식으면서 올해 4월부터 증가세를 멈추기 시작했고 5월에는 심지어 10만b/d 가량의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은 유독 미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오일샌드를 생산하는 캐나다의 원유생산량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석유 메이저들의 투자 감소로 올해 1월부터 감소세가 계속되는 상황이며, 심해 유전이 많은 남미에서도 산유량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OPEC에 비해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석유공급원이라 할 수 있는 비OPEC으로부터의 석유공급이 둔화되는 것은 안정적인 석유수급을 위해서는 그다지 반길만한 상황이 아니다. 또한 석유 기업들의 석유개발 투자 축소로 인한 효과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 두드러질 것이란 관점에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걸쳐 비OPEC 공급에 대한 불안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최근 유가 상승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긍정적인 회복 기류를 보이고 있는 것도 유가 회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까지 미국을 제외한 주요 경제국들의 경기둔화와 저유가에 따른 산유국들의 경제위기로 몸살을 앓았던 세계 경제는 올해 1분기에 예상보다 긍정적인 성적표를 보여주었다. 선진국 경제에서는 유로존 GDP가 지난해 2분기부터 전분기 대비 성장세로 전환되어 지난해 4분기 0.3%에서 올해 1분기에는 0.4%로 조금씩 개선되어 왔다. 일본은 작년 2~3분기

에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다가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각각 전분기 대비 0.3%와 1.0%로 성장률 반전을 보였다. 다만 미국의 1분기 GDP가 전분기보다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겨울철 이상한파와 폭설의 영향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석유소비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였다.

신흥 경제권을 살펴보면, 희비가 다소 엇갈리게 되는데, 지난해까지 재정적자와 금융불안에 시달렸던 인도, ASEAN 경제가 예상 외로 빠른 성장률 회복세를 보인 반면 중국 경제는 여전히 성장률 7%대를 위협받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남미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우려했던 러시아의 디폴트 우려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정으로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다만, 중남미 경제가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의 재정난으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차관 등을 통해 근근이 살림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중동 산유국들도 그나마 최근 유가 회복에 따라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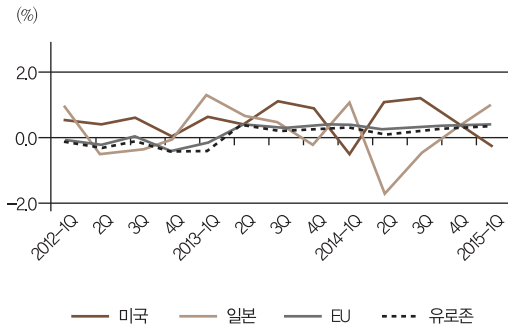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전 세계 경제는 지난해 말 우려했던 것 보다는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EU와 일본이 미국과 같은 방식인 자산 매입을 통한 양적완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은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 여기에 중남미 산유국들 역시 보유한 막대한 자원을 담보로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우려했던 신흥경제국들의 경제위기 가능성은 과거보단 희석되었다고 할 수 있다.³⁾ 실제 국제통화기금도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3) 중국은 국영은행을 통해 올해 들어서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에 각각 10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세계 경제 전망치를 꾸준히 하향 조정해 오다가 최근 4월에는 예측치가 다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세계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 변화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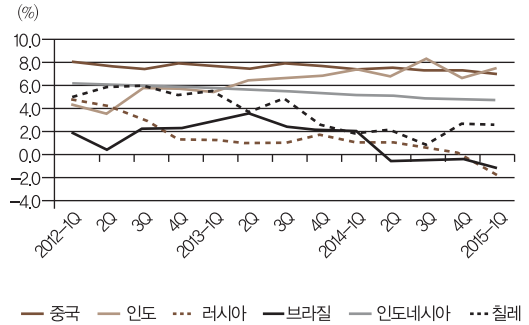
세계 석유수요를 예상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미래 유가를 바꿀 뿐 아니라 석유재고 운영에도 파급되어 현재 유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림 5] 선진국 전분기 대비 GDP 증가율 추이



자료: OECD Library, World Bank

[그림 6] 신흥국 전년동기대비 GDP 증가율 추이



〈표 5〉 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p)

구분	2014	4월 전망		직전(1월) 대비 증감	
		2015	2016	2015	2016
전세계	3.4	3.5	3.8	0.0	0.1
선진국	1.8	2.4	2.4	0.0	0.0
- 미국	2.4	3.1	3.1	-0.5	-0.2
- 유로지역	0.9	1.5	1.6	0.3	0.2
- 일본	-0.1	1.0	1.2	0.4	0.4
신흥국 및 개도국	4.6	4.3	4.7	0.0	0.0
- 아시아 개도국	6.8	6.6	6.4	0.2	0.2
• 중국	7.4	6.8	6.3	0.0	0.0
• 인도	7.2	7.5	7.5	1.2	1.0
- 중동/북아프리카	2.6	2.9	3.8	-0.4	-0.1
- 러시아	0.6	-3.8	-1.1	-0.8	-0.1
- 브라질	0.1	-1.0	1.0	-1.3	-0.5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 2015

2. 2015년 원유시장 전망

가. 석유시장 여건

2015년 한해 세계 석유수급을 예측하자면 석유공급 과잉으로 세계 석유재고가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데 그 누구도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계절적으로 석유수요가 많은 하반기만을 놓고 보자면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이로 인해 올 한해 석유공급 과잉 정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하반기 석유수급에서 살펴볼 것은 세계 경제회복에 따른 석유수요 증가 정도와 저유가가 미치는 비OPEC 공급에 대한 영향, 그리고 OPEC의 원유생산 정책 등이 있다.

세계 경제는 미국을 제외한 주요 경제국들의 저금리와 양적완화 기조에 따라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부양 효과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7%대의 경제성장률을 지키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 등 경기부양에 적극적인 중국은 최근 산업생산 활동이 회복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인도와 ASEAN 지역 등 그 밖의 아시아 개도국들의 경제성장도 그동안의 재정적자 우려가 완화되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들의 경제회복과 이로 인한 신흥 개도국들의 고성장을 동반한 저유가는 하반기 세계 석유수요를 보다 빠르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세계 석유수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 세계 석유수요 증가폭은 상반기 예상치(1.2백만b/d)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유가로 인한 비OPEC 공급 둔화 현상 역시 하반기

기로 가면서 보다 두드러질 전망이다. 비OPEC 공급의 핵심인 미국 원유생산이 석유시추기 수 감소에 따른 영향을 받기 시작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성이 좋고 생산비용이 낮은 셰일 유정이 고갈되어 미국의 원유생산 감소 현상이 보다 뚜렷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IEA는 5월 들어 올해 비OPEC 공급 증가량을 전년 대비 83만b/d로 지난해 12월 전망치에 비해 48만b/d 하향 조정하였다. 이는 지난해 비OPEC 공급 증가폭인 231만b/d의 약 36%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석유시추기 수 감소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IEA가 예상한 것보다 미국의 원유생산 둔화가 가파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가능성들을 고려하면 비OPEC 공급 둔화 역시 하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OPEC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세계 석유수급은 상당히 빡빡해질 전망이다.

OPEC은 시장 지배력 확보를 위해 기존의 원유생산 정책을 유지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얼마 전인 6월 5일 개최된 OPEC 정기총회에서 이미 시장에서 예상한 것처럼 30.0백만b/d의 생산쿼터를 유지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OPEC의 실질 원유생산량은 4월 기준으로 생산쿼터를 1백만b/d 이상 초과한 31.2백만b/d에 이른다. 이렇게 생산쿼터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OPEC을 주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슬람 과격세력인 IS와 전쟁 중인 이라크가 각각 시장 지배력 확보와 자금 조달을 위해 원유생산을 올해 들어 빠르게 늘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OPEC의 실질 원유생산량이 생산쿼터 수준으로 줄어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결국 생산쿼터를 동결한 것은 현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고 보는 쪽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OPEC의 하반기



공급량도 이라크나 리비아에서 정정불안으로 인한 공급 차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이란과 서방 간 핵협상 마감시한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최종 협상 결과에 따라 OPEC의 실질

원유생산에도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유가를 합리적으로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란 핵협상과 관련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표 6〉 2015년 세계 석유수급 전망(기준안)

(단위: 백만b/d)

구분	2013	2014					2015(전망)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OECD 수요	46.1	45.7	44.7	45.8	46.3	45.6	46.3	44.8	45.9	46.4	45.9
비OECD 수요	45.8	46.0	46.9	47.3	47.4	46.9	46.8	47.9	48.4	48.4	47.9
세계 수요	91.9	91.7	91.6	93.0	93.7	92.5	93.1	92.8	94.4	94.9	93.8
비OPEC 공급	54.7	55.9	56.6	57.2	58.2	57.0	58.1	57.7	57.3	57.4	57.6
OPEC NGL	6.3	6.3	6.3	6.4	6.5	6.4	6.5	6.5	6.5	6.6	6.5
대OPEC 수요	30.9	29.5	28.7	29.5	29.1	29.2	28.5	28.6	30.6	30.9	29.7
OPEC 공급	36.7	36.3	36.4	37.0	37.0	36.7	37.0	37.5	37.4	37.2	37.3
세계 공급	91.4	92.2	93.0	94.1	95.2	93.6	95.1	95.2	94.7	94.6	94.9
재고증감	-0.5	0.5	1.4	1.1	1.4	1.1	2.0	2.4	0.3	-0.3	1.1

자료: 실적치-IEA: Oil Market Report, 2015.5; 전망치-에너지경제연구원

나. 국제 원유가 전망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올해 하반기 석유수급은 상반기 보다 다소 빠빠해 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란 핵협상이라고 하는 결과를 예상하기 힘든 변수에 의해 양상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란과 서방 간 핵협상의 최종 타결 여부는 결국 이란의 정치적인 결정에 좌우되는 만큼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 특히, 이달 말인 6월 30일까지 최종 협상안을 마무리해 타결에 도달하기로 계획되어 있지만, 이란 제재에 대한 해제 방식과

함께 군사시설 핵사찰에 대한 이란의 보수파들의 반대, 핵협상 타결 시 주변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핵무장 가능성 등으로 이란 핵협상이 결렬되거나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낮지 않은 가능성들을 감안해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유가 전망에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만일, 이란 핵협상이 순조롭게 타결된다면 이란으로부터의 원유공급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란의 원유생산량은 제재 이전보다 1백만b/d 감소한 2.8백만b/d 수준이다. 제재가 해제되었다고 해서 산

유량을 정상 수준으로 바로 회복시키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란이 그동안 유조선을 이용해 2천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저장해 왔고 이미 원유생산을 늘리기 위해 준비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란의 원유수출은 단기적으로 50~80만 b/d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하반기에도 석유시장의 과잉공급이 50만b/d 이상에 이르며 유가 하락을 부추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국제 원유가가 올해 최저치 수준인 배럴당 40달러 때까지 급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란 핵협상이 결렬된다면 이란으로부터의 원유수출이 현재의 1백만b/d조차 보장받기 어렵게 될 것이다. 미국과 EU의 제재가 보다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세계 석유수급은 하반기부터 공급부족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란 핵협상 결렬로 인한 효과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미국과 EU, 그리고 이란 간에 군사적 충돌 우려를 야기시키며 지정학적 불안도 확대될 것이다. 이로 인해 국제 원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이상으로 급등하는 현상을 다시금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극단

적인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이란과 서방이 양측 간 상당부분에 있어서 조율에 성공하며 협상을 진전시켰다는 점과, 장기간의 협상으로 인해 실패할 경우 양측 지도자들의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협상 결렬로 인해 발생하는 실이 득보다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좀 더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로 이란 핵협상의 재연장 가능성을 언급할 수 있다. 비록 이미 미국 국무부에서 핵협상의 재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는 핵협상 타결을 촉진하기 위해 선언적 문구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 양측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견차가 계속해서 좁혀지고 있다면 기한 내 합의가 어려울 경우 협상을 연장하는 것이 당연히 득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견해가 미국이나 이란 측 협상 관련자들을 통해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란 핵협상의 연장이 결렬보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반기 국제 원유가는 기준안 시나리오에서와 같이 점진적으로나마 소폭 상승하는 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다.

〈표 7〉 2015년 시나리오별 원유가 전망(두바이유 기준)

(단위: \$/배럴)

시나리오	2014(실적)	2015(전망)				
	연평균	1/4(실적)	2/4	3/4	4/4	연평균
기준유가	95.56	51.92	60.68	63.19	65.47	60.31
고유가			64.03	74.24	78.29	71.19
저유가			57.23	45.62	40.94	50.76

주: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BS 모형에 의한 전망치(2015.5월 전망)



참고 문헌

〈국내 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간 국제유가 및 시장 동향」, 각호
_____,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호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 <http://www.petronet.co.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www.ecos.bok.or.kr>

〈외국 문헌〉

BBC, Battle for Iraq and Syria in maps,
2015.6.8
Chatham House, Prospects for Iran's Oil and
Gas Sector, 2015.3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2015.5
IEA, Oil Market Report, 2015.5
_____, Oil Market Report, 2015.1
_____, Monthly Oil Data Service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5.4
KBC, Monthly Oil Market Outlook, 2015.5
www.bakerhughes.com/rig-count (Baker
Hughes Inc)
www.eia.doe.gov(미국 에너지정보청)
www.oecd-library.org
www.reuters.com
www.stats.gov.cn(중국 국가통계국)